

목숨으로 걸어 올린 민주의 빛이여!

5·18민중항쟁 31주기 추모시 - 전숙 시인

빛나는 봄날입니다
빛의 아이가 상모를 돌리고 있습니다
열두 발 죽음의 어둠을 건너서 새푸르게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슬픔이
넘어진 희망을 일으켜 세울 지렛대가 된다지요
손에서 손으로 스며드는 겨자씨 같은 따뜻한 마음들이
목숨을 내놓을 아름다움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서른 한 줄기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픈 역사가 아물어 부활한 줄 알았던 평화가 덧나고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상처들이 알아누워도
홍기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또 다른 광주들을,

빛이여,
빈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 우리가 못 잊혀서
그날의 그 상처 그대로,
그날의 호느낌 그대로
죽음 너머 빛으로 되짚어 오신 입이여,

5·18유족회 '사료로 본 5·18' 발간

당시 유인물·현혈자 명단 등 담다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5·18 유족회)가 5·18 민중항쟁 31주년을 맞아 '사료로 본 5·18'(가칭)을 발간한다.

모두 세 권(700쪽)으로 이달 말께 발간될 '5·18 역사자료집'에는 시민·계엄군이 배포한 유인물·성명서를 포함한 현혈자 명단, 독일·일본 등 해외에서 바라본 5·18, 5·18 민중항쟁 변천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80년 당시부터 97년 전두환·노태우 재권까지의 역사적 자료를 실고 있다. 이들 자료는 5·18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수만(64) 5·18 유족회장은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5·18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제3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일주일 앞둔 1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을 찾은 흥남 흥성중 학생들이 5·18 관련 영상물을 보며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갈등 치유할 광주공동체 절실”

5·18 30+1년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4> '5·18논문' 쓴 성공회대학원생 강은숙씨

“아직도 피해의식, 부상자들 끌어 안아야”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31주년을 맞아 개별화되고 파괴된 광주의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강은숙(여·32·서울시 구로구 운수동·사진)씨는 5·18 민중항쟁을 선택한 것은 5·18 당사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언론기사를 본 뒤부터다. 강씨는 5·18 부상자 중 10%가 자살로 숨졌다는 결과와 5·18 유공자를 소재로 논문을 집필해 최근 대학에 제출했다. A4용지 117쪽 분량의 논문 주제는 '5·18시민권 기동타격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항집단 내 하위주체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에 관한 연구'다.

강씨는 논문에 대해 “5·18 부상자들에게 묻는 5·18”이라고 설명했다. 헤가 거들릴 수록 5·18은 관련 단체 개리, 혹은 단체와 시민 사이에 골이 깊어졌고, 당사자들에게는 ‘배반의 5·18’로 남아있다는 것. 강씨는 오는 7월에 있을 논문 통과 발표를 기다리

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가 고향인 강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광주 5·18 민중항쟁을 선택한 것은 5·18 당사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언론기사를 본 뒤부터다. 강씨는 5·18 부상자 중 10%가 자살로 숨졌다는 결과와 5·18 유공자를 소재로 논문을 집필해 최근 대학에 제출했다. A4용지 117쪽 분량의 논문 주제는 '5·18시민권 기동타격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항집단 내 하위주체의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에 관한 연구'다.

강씨는 논문에 대해 “5·18 부상자들에게 묻는 5·18”이라고 설명했다. 헤가 거들릴 수록 5·18은 관련 단체 개리, 혹은 단체와 시민 사이에 골이 깊어졌고, 당사자들에게는 ‘배반의 5·18’로 남아있다는 것. 강씨는 오는 7월에 있을 논문 통과 발표를 기다리

1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강씨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5·18 관련자들은 국가폭력으로부터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보다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 즉 5월 단체인 총돌과 5월 단체 내부·광주시민들로부터의 고립 등이 맞물려 2차적 트라우마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5·18 민중항쟁 31주년을 바라보는 강씨의 시선은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식적인 담론으로 오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 물질이 주종을 이루지만, 정작 5월 부상자들의 피해는 진행형이다. 10년 넘게 폭도 취급을 받는데다 이후에도 환영받지 못한 자괴감 등 피해의식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다.

강씨는 당시의 대중 세상, 완벽한 공동체를 이뤘던 광주가 다시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 오월 정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상자들의 2차·3차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광주 시민들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운명공동체의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5·18을 비롯해 현장의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싶다는 강씨는 “우리는 아직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시가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2분 해질 19시 27분 달돋이 13시 38분 달질 01시 41분

오후부터 황사 주의!

흐리고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내린 후 오전에 그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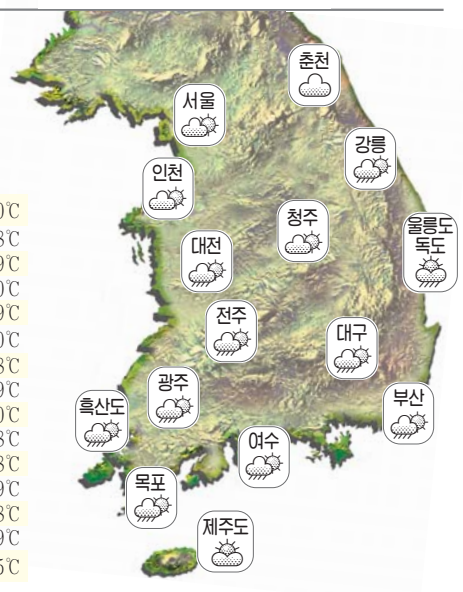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Forecast. Locations include Jeonju, Mokpo, Naju, Wando, Gurye, Haenam, Jangheung, Suncheon, Yeosu, and Gwangju. Forecasts include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Table with 4 columns: Sea Area, Direction, Wind Speed, and Wave Height. Rows include Jeonnam South Sea, Jeonnam West Sea, and Jeonnam East Sea.

Table with 4 columns: Sea Area, Direction, Wind Speed, and Sunrise/Sunset times. Rows include Jeonnam South Sea, Jeonnam West Sea, and Jeonnam East Sea.

Table with 2 columns: Day and Weather. Days range from 13th (Wed) to 18th (Sun). Weather icons and high/low temperatures are provided for each day.

장마 같은 봄비 왜?

강우전선 정체... 1주일새 내리다 그치다 반복

11일 구름, 고층,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완도, 함평 등 전남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때인 폭우가 내렸다. 지난 7일부터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던 이번 비는 12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장마같은 봄비원인은=11일 오후 5시까지 광양 117.5mm, 순천 95mm, 함평 94.5mm, 고흥 87.5mm, 여수 72.5mm, 무안 71.0mm, 광주 65.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10일에도 장수에는 108mm, 완주 99mm, 진안 78mm, 김제·임실 66mm, 전주 59.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비가 지속된 것은 북쪽의 차고 습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강우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필리핀에서 발생한 1호 태풍 에어리온에 의해 열대지방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강우전선이 소멸되지 않았

다. 태풍 에어리온은 12일 오후 3시께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50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예정이다. △비 그친 뒤 황사=비는 12일 오전에 그친 당분간 맑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2~13일께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네이핑구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해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고 있어 12~13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11일 예보했다. 이번 황사는 12일 오후에서 새벽 5도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늦은 오후나 밤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광주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 전남·북 지역이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rt' services. Features a hand holding a smartphone displaying various service icons like TV, food, and shopping. Text includes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nd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A QR code is shown in the top right corner.